

세인트 빈센트섬 베랄리 고래어부들의 샐티:  
독특한 카리브해 해양 전통의 본질과 쇠퇴, 부활에 대한 관찰  
Whalers' Shanties of Barouallie, St. Vincent :  
Observations on the Nature, Decline and Revival of a  
Unique Caribbean Maritime Tradition

다니엘 라니에르(Daniel Lanier) & 빈센트 레이드(Vincent Reid)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베랄리 고래잡이 프로젝트(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Barraralie Whalers Project), 연구원

# 세인트 빈센트섬 베랄리 고래어부들의 산티: 독특한 카리브해 해양 전통의 본질과 쇠퇴, 부활에 대한 관찰

● 다니엘 라니에르(Daniel Lanier) & 빈센트 레이드(Vincent Reid)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베랄리 고래잡이 프로젝트(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Barraralie Whalers Project), 연구원

## 개요

카리브해의 세인트빈센트 섬에 있는 베랄리(Barrouallie) 어촌은 고래잡이들의 중심지라는 독특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고래잡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포획을 알리는 방법으로 고래선을 해안가로 끌고 올 때 '산티'라는 노동요를 불렀다. 베랄리의 산티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는 산물 중 하나로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바닷가 뱃노래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하위 장르로 여겨진다. 산티는 19세기 상선 선원이 부르던 국제적인 노동요이다. 산티는 단순한 노동요가 아닌 표현의 한 방식으로 재미, 풍자, 광고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곳 개발도상국 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는 산티부르기의 존속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2001년 베랄리의 고래잡이 전통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산티는 물론 이 지역 고래잡이 산업에서 이들 노래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세대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21세기에 현존 계승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해양 음악 전통의 르네상스는 더 크게 인정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산티 공연과 녹음을 통해 베랄리의 고래잡이들은 2001년부터 전세계 청중들에게 포경이라는 유산을 해석하고 알려왔다.

## 서론

동부 카리브해의 베랄리 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이 마을이 해당 지역의 다른 해안가 마을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리워드 고속도로(Leeward Highway)를 따라 마을로 들어서면 길을 따라 늘어선 형형색색의 림주를 파는 술집,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카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주민들, 향기로운 섬의 향취, 독특한 박자의 레게 음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은 이 특별한 어촌마을의 고유한 특징과는 모순된 것이다. 베랄리를 포경의 중심지로 알고 있는 빈센트 섬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포경 산업과 관련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약 5,500명으로 구성된 중요한 어촌마을인 베랄리(BEHR-a-lee로 발음)는 섬의 수도인 킹스타운에서부터 북쪽으로 약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13° 15' N, 61° W). 킹스타운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t. Vincent and the Grenadines)의 최북단이자 세인트빈센트 섬의 남서쪽 혹은 바람부는 해안 쪽에 위치해 있다. 이 군도 안에 있는 이웃국가로는 세인트루시아(St. Lucia), 그레나다(Grenada), 바바도스(Barbados)가 있고 트리니다드(Trinidad), 토바고(Tobago)가 인접해 있다. 베랄리의 주민 대부분은 아프리카인의 후손이며, 많은 남성들은 상업적 어업과 생계형

어업을 부업으로 하며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많은 카리브해 지역이 본질적으로 서부 아프리카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크리올(Creole) 문화를 공유하고는 있으나, 이 군도 전반의 습속에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베랄리에는 매우 독특한 해양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바도스, 트리니다드,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 섬의 주변 바다는 계절별로 다양한 고래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안가 기반 고래 어업이 역사적으로 기지화되어 있다(Reeves: 2002). 이 지역에서 고래잡이 어부들은 해안가에서 출발한 범선을 타고 사냥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 이들 지역의 포경업은 주로 흑등고래 포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베랄리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상업적인 흑고래(pilot whale, black whale) 포획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베랄리 포경 전통의 음악적 요소는 그 전통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대체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카리브해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다양한 민속 문화적 자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베랄리 지역의 여러 고래잡이들은 해안가 기반의 포경 활동에서 비롯된 빈센트 섬의 독특한 민속음악을 계승하는 마지막 전승자들이다. 이 지역 노동요의 대다수는 '산티'로 알려져 있으며,<sup>1</sup> 오늘날 베랄리 지역의 토속 전통으로 간주된다. 산티는 더 오래된 원양 어업의 '벳 노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문서화에 앞서

베랄리 지역의 포경업 노래에 대해 오늘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66년 이곳을 방문한 미국의 민속학자 로저 아브라함(Roger Abrahams)의 작업 때문이었다. 아브라함 박사는 고래잡이 어부들을 인터뷰하여 당시 그들이 부른 노래를 녹음했다. 이후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유명한 작품인 '깊은 바다, 얕은 해안가: 서인도 제도 산티에 대한 3개의 에세이(Deep the Water, Shallow the Shore: Three Essays on Shantying in the West Indies)'로 출간했다. 그의 글 'Solid Fas' 선장의 외침: 베랄리의 고래잡이라는 글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래잡이 어부가 가르쳐준 음악 선물들을 노동요 혹은 산티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Abrahams, 1974). 지역사회의 이 노래의 역할에 대해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아브라함의 글은 전 세계적으로 벳노래 및 해양 매니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분석한 참고 서적이 되었다.

빈센트 섬의 연구자인 로이 잭슨(Leroy Jackson)은 베랄리 흑고래잡이 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서, 선원들이 해안 가까이에 왔을 때 벳노래를 불러, 고래 포획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하고 그 예로

한 산티를 발췌해 제공했다(Jackson: 1967, p. 11). 잭슨은 비록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노래를 듣는다 해도 이는 전체 공동체에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는 데는 충분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고래학자인 데이빗 칼드웰(David Caldwell)과 멜바 칼드웰(Melba)은 돌고래와 고래에 대한 현장 연구를 위해 1968년에서 1971년까지 베랄리 지역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동식 녹음 설비를 가지고, 앞서 아브라함(Abrahams)이 녹음한 고래잡이 어부들의 산티 여러 곡을 녹음했다(Caldwell and Caldwell: 1968-1971).

같은 기간 동안 미국 평화 봉사단의 청년 봉사단원이었던 잭 스타네스코(Jack Stanesco)는 베랄리 지역 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Paton: 1971, pp. 3-4). 한때 포크 가수였던 스타네스코는 현지에서, 그리고 베랄리 지역의 산티를 여러 곡 배우고, 일부 가수의 노래를 테이프 로 녹음했다.<sup>2</sup> 아브라함이 인터뷰하고 칼드웰 부부와 스타네스코가 1960년대에 녹음한 여러 노래들은 십여 년이 흐른 지금 베랄리 지역의 아카펠라 민속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 선원과 고래어부들

역사적으로, 많은 빈센트 섬 주민들이 해운업에 종사해왔다. 19세기에 섬주민들은 상선 선원이나 고래잡이로서 영국, 캐나다, 미국 선박에 승선했다. 외딴배와 스쿠너선 같은 보조 범선을 타고 항해하는 섬 무역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역 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부터 세인트빈센트의 농업 수출은 원양 항해에 의존하여 시장에 접근했다. 따라서 섬의 경제는 외부 세계와의 오랜 해양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Adams: 1996).

이후에 베랄리 주민이 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다의 고래어부들은 원래 돛과 노로 움직이는 미국식 25피트 목재 고래잡이배를 타고 포획을 했다(그림 1 참조). 이 배에는 19세기 미국의 고래잡이 어부들의 방식대로 6명의 선원이 승선했다. 미국의 고래잡이 어부들이 택한 기술을 활용해(Ward: 1995), 이곳의 포경 산업은 수출용 고래 기름과 현지 소비를 위한 고기를 생산했다. 1960년대 들어서, 십여 척의 베랄리 포경선단은 매년 수백 마리의 흑고래를 포획했으며 때로는 대량의 범고래와 향유고래도 포획했다. 1970년대 초에는, 포경선들 대부분이 선외모터를 달고 앞 갑판에 경량의 작살총을 갖췄다. 베랄리의 일부 고래잡이 어부들은 계속해서 흑고래와 참돌고래를 포획했다. 이 고래들은 크기가 더 큰 다른 고래보다 국제 포경 위원회의 포획 제한을 덜 받는 어종이다. 고래 고기는 이 지역

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킹스타운 근처의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다.

### 벳노래와 산티

'대항해 시대'는 노동요 등 직업 관련 지식을 다루는 단체와 함께 미국과 영국의 원양 선원 계층의 근원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19세기 중반에 절정에 달했다. 벳노래를 부르던 고전적인 시기는 대략 1840년대에서 1860년대에 이르는 기간으로 미국 향유고래 포경산업의 절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바다에서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인 벳노래는 이러한 노래가 필요한 배나 관련 작업 등의 여러 기능적 분류에 잘 들어맞는다. '불어서 넘어뜨려라(Blow the Man Down)' 라는 노래는 사각형 돛을 세우는 동안 부르던 벳노래였고, '리오 그란데(Rio Grande)'는 돛을 들어올리기 위해 캡스틴(돛·무거운 짐 등을 감아올리는 장치)을 돌리는 작업을 할 때 부르던 캡스틴 벳노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요는 하역이나 선하작업과 같은 부두 작업 시에 불렀다. 벳노래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의 벳노래는 특정 유형의 업무에 맞는 음악 형태로 개작되었다. 예를 들어 마룻줄 벳노래와 같이 돛을 감아올릴 때 부르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독창과 짧은 제창이 번갈아 나오고 제창은 선원들이 동시에 돛을 감아올려야 하는 특정 시점(가사와 운율에 표시되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집된 문헌과 녹음된 소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벳노래는 미국과 서유럽의 항해 선박이 원양 해운업을 장악했던 19세기 중반에 노동요로서 가장 널리 유포되었다. 벳노래의 거의 모든 주요 수집가들은 이러한 장르의 크거나 적은 문화적 영향력을 다양하게 관찰하였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으로 구성되었지만 공통된 업무 지식을 공유했던 원양 상선의 선원들은, 수많은 항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동요의 전통을 교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얻게 되었다. 노동요 장르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사람으로는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카리브해 사람들, 영국인 그리고 아일랜드인이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벳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북유럽, 독일, 기타 국적의 선원들만큼이나 매우 다양했다.

미국 배를 처음으로 탄 조아나 콜코드(Joanna Colcord)는 이러한 현상을 영국 함선과 미국 함선에서 불리던 벳노래로 요약했다.

*두 국가의 배들이 전 세계의 항구에서 만났고 선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미국이나 영국 배에 상관없이 승선했다. 이들의 국적을 구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쉽지도 않았을 것이다 (Colcord: 1924, Foreword, p. 4).*

콜코드는 여러 벳노래들이 그 기원을 노래에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모바일 만(Mobile Bay)과 같은 미국의 남부 면화 무역항에서는 유사한 노동요가 나사형 잭과 썰기를 가지고 면을 선박에 싣는 힘든 육체노동을 할 때 불렀다. 이러한 계절 작업에는 선원과 부두 인부 등 다양한 국적의 육체 노동자들이 모였으며, 이 중 다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해양 민속학자인 호레스 벅(Horace Beck)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을 여러 번 방문하며 다양한 벳노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벳노래만의 독특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벅은 그가 해당 지역에서 찾아낸 벳노래들이 공통적인 요소를 분명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상으로 유사한 벳노래들의 주요 부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다. 벅은 1960년대에 벳노래 부르기가 [주로 베퀴아(Bequia) 및 카리코우(Carriacou) 지역의] 선박 인수 및 청소, 고래잡이를 위한 항해 등, 공동체의 업무로 통합된 현존하는 전통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벳노래가 원양어업 노래에서부터 전해져 온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현지인의 태도와 활동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었다고 보았다(Beck: 197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포경업의 맥락을 고려할 때, 노를 저으며 벳노래를 하는 전통은 분명 20세기 초에 구축되었다. 프레데릭 펜거(Frederic Fenger)는 1911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부의 일드 카일리(Ile-de-Caille, 카일리 섬)를 방문했을 당시, 달 밝은 밤에 고래잡이 선원들이 부르는 구슬픈 벳노래에 대한 글을 썼다. 선원들은 흑등고래 어부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동굴의 그림자 속에서 느끼는 상상의 공격을 쫓기 위해 이 벳노래를 불렀다(Fenger: 1958, p. 48).

베랄리 어부들 사이에 산티는 주로 노를 저고 돛을 끌어올리는 두 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용되었다. 하지만 노동요로서의 벳노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비교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 및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음악적 표현이 갖는 중요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산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교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노래가 공동체 내에서 갖는 사회적 표현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오늘날 한 세대 이전에 산티를 들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베랄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노동보다는 그들의 성공을 알리기 위해 호기롭게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고래잡이 선원의 귀향과 더 연결시키고자 한다.



그림 1  
1970년 대 베랄리 지역의 흑고래 어부들(circa 1970). 뉴 베드포드 포경 박물관(New Bedford Whaling Museum) 소장(켈드웰 작품)

## 베랄리 고래어부의 산티

앞서 언급했듯이 세인트빈센트 섬에서 '산티'로 알려진 음악의 형태는 연안 고래잡이 특히 베랄리의 대표적 산업인 흑고래잡이 관습과 관련이 있다. 이 노래는 고래를 성공적으로 포획한 후 고래잡이 배를 물가로 노 저어 올 때 불리기 때문에, 베랄리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 베랄리 어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들의 산티는 일종의 방송이나 광고의 역할을 한다. 즉 주민들에게 포획물이 곧 항구에 도착할 것이며 고래를 해안가로 끌어낼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베랄리는 흑고래나 더 큰 고래를 해안가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노래를 몇 가지 더 갖고 있다. 이러한 노래에는 널리 알려진 카리브해의 노래 야르도(Yardo)가 있는데 이는 가까이에 있는 베쿠아와 카리코우, 그리고 좀더 떨어진 자마이카에도 알려져 있다.

베랄리 지역에 알려진 산티의 대부분은 고전적인 원앙어선 뱃노래, 즉 '불어서 넘어뜨려라(Blow the Man Down)', '안녕 잘 가라 잘 가(Good-bye Fare-You-Well)', '리오 그란데(Rio Grande)', '불어라, 소년들이 불어라(Blow, Boys, Blow)' 등의 노래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래는 전 세계 선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며 주요 뱃노래 모음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선원 노래의 곡조와 가사적 요소들은 베랄리 조상의 뱃노래가 사라진 지 오랜 뒤에도 많은 베랄리 산티에 남아있다. 비록 노래는 솔로 부분의 가사에서 독특한 지역적 취향과 의미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산티의 특징적 멜로디와 후렴구의 대부분은 원앙어업 뱃노래와 매우 유사하다.

많은 산티들이 고래와 고래잡이를 언급하고 있고 포획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7년이라는 긴 세월(Seven Long Years)', '아주 오래 전에(Long Time Ago)'와 같은 노래는 오래고 고된 고래잡이를 마친 후나 오랫동안 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래를 잡았을 때 부르는 산티이다. 아래에 발췌된 노래를 통해 원앙어업의 뱃노래가 그 일반적인 형태와 일부 유사한 어구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베랄리의 고래잡이 노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뱃노래: 쉐난도(Shenandoah)

7년 동안 나는 샬리에게 구혼을 했네,  
에헤이, 너는 강을 넘는다.  
7년을 넘게 나는 그녀를 원했네,  
하하, 우리는 달려간다, 넓은 미주리를 건너서 (Colcord: 1924, p. 32)

산티: 7년이라는 긴 세월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다로 나간다.  
후~ 노를 저어라, 남실거리는 강이여,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만져보지도 못했네.  
우리는 이 고통의 세상을 넘어 뛰어간다.

이 두 가지 버전의 가락은 매우 유사하나 주제는 크게 다르다. 앞의 뱃노래는 오랜 기간에 걸친 선원의 구애를 다루고 있는 반면, 뒤의 노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고래를 찾는 것에 대해 부르고 있다. 베랄리 산티의 다음 행은 포경과 고래어부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동일한 제목의 유명한 뱃노래에 근거하고 있는 '안녕, 잘

가라'는 소위 다가가서 작살로 잡기 쉬운 '온순한 흑고래'를 의미하는 버뮤다 출신 소녀들을 언급하고 있다.

버뮤다에서 온 소녀들이 우리를 쳐다본다,  
후~ 노를 저자, 후~ 노를 저자, 후~ 노를 저자, 소년들이여  
북서쪽을 향해 우리는 방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집으로 간다  
안녕, 잘 가라, 안녕, 잘 가라

아브라함이 통찰력 있게 설명했듯이 일부 산티는 고래잡이 배의 준비에 있어, 배 소유주와 선원간의 긴장관계를 표현한다. 잘 알려진 '불어서 넘어뜨려라(아래 참조)'가 바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산티는 원앙어에서 불리던 뱃노래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선원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음악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다양한 영향력

일반적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문화는 다양한 기원에서 진화해왔다. 따라서 베랄리 지역의 음악 유산 역시 그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 표면상으로 베랄리의 산티는 원앙 선원의 뱃노래에서 시작되었고, 멜로디와 가사의 특징에 있어 1800년대 영어권 상선 선원 및 고래잡이들에게 잘 알려진 여러 뱃노래들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실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가까이에 있는 베쿠아 섬은 흑등고래잡이로 유명한 중심지이자 베랄리 고래어선의 근원지로서 미국의 고래잡이<sup>3</sup> 및 뱃노래 전통과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 관련 장르로는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사람들이 노를 저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베랄리 근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산티와 같은 시대에 불렸다. '수송용 배'로도 알려진 리워드 카누는 세인트빈센트 섬 주변에 현대적인 도로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용된 핵심적인 교통수단이었다. 토속 카리브 원주민이 설계한 길이 약10-12미터의 마상이 카누(dugout canoes)는 리워드 해안을 따라 수도인 킹스타운까지 노를 저어서 수하물과 승객을 날렸다. 노 젓는 사람과 '타수'(키잡이)는 노를 동시에 젓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노 젓는 노래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예 1



함께 통일해서 노를 당김과 함께 '와 뱃!'이라고 제창한다. 이는 다른 뱃노래들이 배의 기계부분을 끌어올리거나 들어 올릴 때 부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조화롭게 힘을 쓸 수 있도록 한다. 키잡이는 영채! 지금 움직이자!<sup>4</sup> 와 같은 말을 합창 사이에 외치며 사람들을 고무시킨다.

베랄리는 일부 망상이 카누의 발상지였다. 고래잡이 어부들의 노 젓는 노래 중 하나인 '검은 새가 일어난다(Black Bird Get Up)'는 부분적으로 '종을 울리는 시합(ring play)' (노래게임)에 근거하고 있지만 앞서 묘사된 수송용 배 관련 노래는 형태 및 운율이 유사하다.

예 2



베랄리 고래잡이 어부들이 설명하기를 선장은 고래를 찾아 나설 때 선원들을 고무시키고 조화롭게 노를 젓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노젓기 노래는 특히 일반적으로 베랄리 산티 전통의 원형이 되는 고대의 다양한 뱃노래들을 대표한다.

뱃노래 주제에 대한 글을 왕성하게 쓰고 있는 스탠 휴길(Stan Huggill)은 뱃노래의 즉흥연주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흑인계 미국인이 뱃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칼립소 가수의 모습을 비교했다.

"전형적인 흑인들의 '산티'에서 처음의 두세 개 행은 소위 '규칙'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칼립소를 부르는 방식으로 즉흥적으로 노래한다(Huggill: 1961, p. 32)."

카니발 음악으로서 상당히 카리브적인 장르인 칼립소는 반론의 여지 없이 베랄리 산티 전통과 유사하다. 레게, 가스펠, 소카, 스카 등 카리브해 나라에서 오늘날 유명한 많은 음악들은 빈센트섬 문화나 사회에 칼립소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연주 스타일과 아프리카 유희 노래 전통에 뿌리를 둔 이러한 형태의 열대 노래는 섬나라에서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베랄리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산티는 카리브해 전역에서 즐겼던 칼립소의 풍자적 기능과 유사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칼립소 가수와 산티 가수는 청중들에게 즉흥적인 작곡과 표현이라는 기쁨을 공통적으로 선사한다. 칼립소에서 느끼는 재미와 마찬가지로 산티는 유머, 운율, 리듬과 함께 의견 및 한 사회 집단, 즉 고래잡이 어부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여타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보다 큰 만족감을 제공했다.

아브라함이 지적했듯이 베랄리의 고래잡이 어부들은 '볼어서 넘어뜨려라'와 같은 오래된 뱃노래를 변형시켜, 노동자들에게 조악한 장비를 제공하는 배의 소유주를 풍자했다(Abrahams: 1974). 오래되고 낡은 포경 도구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망가지게 되면, 고래잡이 어부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예 3



뱃노래 가수가 이 주제에 대해 솔로로 부르는 그 밖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나에게 밧줄을 준다면 나는 염소처럼 그것을 묶을 텐데, 나에게 끈을 준다면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 텐데!'<sup>5</sup> 이러한 유형의 음악적 비평을 통해 어부의 산티는 칼립소의 기능과 동일한 유사 깊은 사회적 통제 기능을 수행했다.

고래잡이 어부들이 조롱하는 또 다른 주제는 조선대에 포획물을 내려 놓는 데에 세금을 징수해가는 관리인 양복을 입은 남자(De Man in de Waistcoat)이다.

예 4



이러한 노래는, 이처럼 잘 차려 입었지만 악명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코믹하게 그려낸다.

다른 행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는 주일학교에 간 꼬맹이처럼 걸상에 걸터앉아 있네,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어부의 돈을 좋아한다네.'

민속학자들이 분석해왔듯이 카리브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원양 선원의 양성소로 기능해왔으며, 뱃노래나 뱃노래에 영향을 준 노래들은 이들 섬과 다른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 상업적 포경업의 역사 때문에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은 오랫동안 뱃노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1920년대와 그 이후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진 노르웨이 사람들의 포획활동(Romero and Hayford: 2000)은 이러한 음악적 전통이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영향을 미쳤는데,<sup>6</sup> 그 이유는 고전적인 뱃노래가 북유럽 선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부 카리브해 지역은 2세기에도 이들의 오랜 해양 노래 전통의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는 유일한 영어권 지역이다.

뱃노래 비평가들은 뱃노래 가수로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가진 재능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콜코드는 1890년대 원양 항해의 경험을 회상하고 뱃노래를 부르는 미국인, 영국인, 아일랜드인의 장점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 산티를 부르는 최고의 선원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력은 이들을 훨씬 능가한다 (Colcord: 1924)." 다른 존경 받는 뱃노래 기록자인 윌리엄 도플링거(William Doerflinger) 역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

하나의 계층으로서 흑인들보다 더 훌륭한 뱃노래 가수란 없다. 이들은 노래, 춤, 유머의 은총을 받은 인종이며 이러한 재능은 흑인들을 [선사

의] 엔터테인먼트로서 특히 유명하게 만들었다(Doerflinger: 1990, p. 97)

관찰자들도 언급했듯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수의 팔목할만한 음악적 능력은 인종적 기질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문화와 그곳에서 발생한 음악적 스타일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백 년 동안 수집되어 분석된 뱃노래의 실제에서, 서구 인디언이 뱃노래라는 장르와 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풍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Abrahams: 1974, pp. 6-9). 이러한 뱃노래를 관찰하고 녹음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여행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서구 인디언들의 걸출한 즉흥연주 실력과 특히 화음의 사용에 대해 종종 언급했다. 일부 뛰어난 뱃노래 수집자들은 특히 동부 카리브해 노래를 높이 평가했다. 프레데릭 피스 할로우(Frederick Pease Harlow)는 여러 서부 인디언의 노동요를 그의 미국 선박의 뱃노래(Chanteying Aboard American Ships)에 포함시키고 1878년 바바도스 항만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부른 노래에 대한 기억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수하물을 수동으로 옮기는 흑인 하역노동자들은 매일 이 뱃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하모니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대학 4중창단 보다 훨씬 빛났다.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러한 노래를 다시는 들어볼 수 없을 것만 같다(Harlow: 1948, p. 241).

유명한 영국의 뱃노래 편집자이자 선원인 스탠 휴길은 할로우가 바바도스를 여행한 지 50여 년이 지나서 수집하기 노래를 시작했다. 그는 윈드워드 섬에서 많은 항해 노래를 배웠으며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동부 카리브해 선원에게 이어진 7대양의 산티(Shanties from the Seven Seas, to Eastern Caribbean seamen)에서 약 50여 가지 버전의 뱃노래를 담았다. 휴길의 자료에는 최소 5명의 정보제공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빈센트섬 뱃노래 가수도 들어있다(Hugill: 1961). 할로우와 휴길의 사례들은 분명 뱃노래의 존경할만한 기원이자 궁극적인 인식처로서 이 지역의 필요로움을 지적하고 있다.

뱃노래는 20세기 초 '대항해 시대(Age of Sail)'를 거치면서 수년 동안 대중적인 카리브 전통으로 존속되어왔다. 미국의 민속음악학자 로맥스(Lomax)는 1930년대와 1960년대 이 지역 전체에 매우 성공적으로 진출해 수집과 문서화를 했다(Lomax et al: 1997). 반면 상업적 항해선박의 쇠락으로 뱃노래는 20세기 초반까지 상선 선원들 사이에 사용되다가 거의 사라졌으며 몇몇 고된 노동을 통해 그 용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카리브해 섬 지역 일부에만 유포되어 유지되고 있다. 식민지 시대 이후 토속 아프리카계 카리브 문화는 노동자들이 부르는 공동체적 노래에 호의를 보여왔으며, 섬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관습을 대륙의 공동체보다 훨씬 잘 보존했다.

### 베렐리 산티의 쇠락

노동요로서 뱃노래가 사라진 것은 상업용 가로돛 선박과 그 배를 탔던 전 문 선원들의 불가피한 몰락에 따른 것이었다. 선외 모터(1960년대 후반)와 기타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면서, 노동요로서의 산티는 시대에 뒤떨어진 폐물이 되어 버렸으며 이러한 과정은 베랄리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산티가 왜 중단되었느냐는 질문에 고래잡이 어부 자신들은 또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포경선이 베랄리에 도착할 때, 항만을 둘러싼 화산 언덕에서는 노 젓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오고 배의 선원들은 포획물이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지친 노젓는 노동자들은 고래를 해안가로 끌어올리고 신선한 포획물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과정들을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해안가로 모이기를 기대했다. 전통적으로 그러한 활동은 공동체의 참여라는 강력한 요소를 필요로 하며, 지역의 관행 역시 어느 정도는 고래 고기를 공유하도록 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베랄라와 그 외 카리브 지역에 있어 신속한 발전과 전면적 변화의 시기였다. 현금 거래가 점차 지역 경제에서 중요해졌고 공동체 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수익성이 거의 없는 포경업 관례에 영향을 미쳤다. 고래잡이 어부와 선박 소유주 등의 선택된 소수만 포획된 고래를 공유하는 것이, 이를 공동체 내에서 널리 공유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현금 수익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공동체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포경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고래를 포획하고 돌아온 선원들이 더욱 조용해지게 된 것이다.<sup>8</sup>

'미국인들을 데려가라'라고 알려진 산티는 이러한 상황으로 돌변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예 5



지역 방언을 사용한 첫 솔로 부분은 '고래 잡으러' 나가지 않는 자는 항만으로 돌아오지도 말아라(who na been off, na come a bay)이다. 노래는 계속되는 훈계로 이어진다. '간을 원한다면 구매해야 한다, 위를 원한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로 이어지는 데 이 노래는 고래잡이 어부들이 고래고기에서 가장 기피되는 부분일지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티의 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금전적 이윤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보다 이들의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물론 카리브지역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베랄리의 경제적 변화는 많은 문화의 변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발전은 이 지역 전반에서 구전 민간 전승문화와 민속음악의 쇠퇴를 가져왔다. 전설(아난시 이야기), 고리놀이, 그밖에 한 때 유행했던 수많은 민속 전통들은 교실에서 때때로 실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오로지 나이든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다.

### 산티와 산티를 부르는 사람들의 르네상스

저자들의 제안에 따라 현재 '베랄리의 고래잡이'로 알려진 사람들은 2002년 초 아브라함박사의 주요 정보제공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메이슨(Alfred Mason)의 집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다. 약 36년 전의 이들은 베랄리 산티에 대한 아브라함의 논문에 핵심적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60, 70대에 접어든 베랄리의 고래잡이들은 돛과 노를 저어가

는 나무로 만든 고래잡이 배를 타고 사냥을 나섰던 카리브지역 고래잡이들의 마지막 세대다. 이들은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이러한 노동에 종사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오늘날까지 (좀더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계속 흑고래를 잡고 있다. 해외로 초청받아 민속 음악의 열광적 팬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연할 때를 제외하고는 베랄리의 고래잡이들은 그들 자신을 전문적인 음악 연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와 이를 통해 발생한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포경 시대의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도록 고무시켰다.

2002년 봄, 베랄리 고래잡이 4명이 미국 최고의 해양 박물관인 코네티컷 신비로운 항구 박물관 (Mystic Seaport Museum in Connecticut)에서 포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괄목할 만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났다. 베랄리 고래잡이들이 그들의 독특한 노래, 이야기, 포경 지식에 대한 레파토리를 처음으로 해외로 가져와, 박물관의 연례 바다 음악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연주자와 청중이 모여든다. 해양 음악 페스티벌에서 만들어진 CD에는 베랄리 고래잡이들이 부른 곡 3개가 들어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엔터테이너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 베랄리 고래잡이들은 그들의 고래잡이 지식과 노래 유산을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을 시작했다. 2003년 10월 베랄리의 고래잡이들은 네덜란드의 프리슬랜드(Friesland)로 가서 워크쿰(Workum)에서 열리는 한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3일간 열린 국제적 행사기간 동안 그들은 명예 손님으로서 여러 음악 및 드라마 공연에 참여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세인트빈센트 섬의 농림수산부가 2005년 어부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베랄리 고래잡이들은 킹스타운에서 열리는 전시를 위해 공연을 했다. 다른 공식적 행사들도 이들의 문화 유산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세인트빈센트 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베랄리 산티와 포경 전통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 지역 바깥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해양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열렬한 팬들에 의해 고무된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보자면 실제 난해한 구식의 노동 음악으로서 고된 노동과 수준 낮은 생활의 지나간

과거와 연관된 산티의 부활에 호의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상업적 흑고래잡이가 이 지역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지속되고는 있지만 산티가 전성을 누리던 시대의 오랜 사회문화적이며 복합적인 속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관광산업의 번영에 매우 민감한 세인트빈센트 국가 유물의 공식적 후원자들은 환경적인 우려에 따라 외국인들이 포경업을 항상 우호적으로 보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는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을 꺼려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다수 고래잡이 어부들 스스로가 베랄리의 음악 전통의 장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응하기는 했지만 이를 치하하는데 앞섰던 사람들은 다름아닌 외부인이었다. 산티의 부활에 대해 이들 고래잡이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일종의 향수, 그 문화를 알아본 외국인의 청중들이 내는 반응에 대한 흥분을 반영한다.

베랄리 고래잡이들은 단순한 부흥주의자라기 보다는 전통의 진정한 전승자로서, 사람들이 뱃노래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전문 엔터테이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콘서트가 열릴 때는 재능 있는 연주자가 된다. 고래잡이들은 재능 있는 뱃노래 가수를 감시히 여기고 이들이 뱃노래 연주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산티를 보여주는 각 공연은 독특하며 즉흥적이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음성의 하모니는 관중의 재미를 위해 일부러 꾸민 것이 아니라 많은 산티 후렴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징이다. 그들의 공연은 필사본이나 녹음된 음반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산티(뱃노래)의 많은 요소들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특징에는 가사의 즉흥성과 목소리의 겹침, 중간생략, 해설, 동시 움직임, 그리고 해당 집단이나 공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미묘하고 강렬한 상호작용들이 포함된다.<sup>9</sup> 베랄리의 산티 전통은 최고 수준의 카리브해 민속음악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베랄리 산티 전통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공연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을 해석하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 말 이래 베랄리 학교의 음악 수업에서는, 가족이 흑고래잡이 무역에 종사했던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때때로 산티를 다루기도 했다. 국제적인 성공에 따라 다시금 부각된 베랄리 고래잡이 유산에 대한 관심은 지역차원에서 전통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베랄리 고래잡이 어부들의 약속을 보여준다.

그림 2

베랄리 고래잡이 선원(왼쪽부터) 에드가 몰레인, 베론 해리, 조지 프레데릭, 고래잡이 선원들이 2002년 코네티컷 신비로운 항구 박물관(Mystic Seaport Museum in Connecticut)에서 고래잡이 배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수석 박물관 해설자인 제임스 모티머(James Mortimer)가 앉아있다. 1841년 고래잡이 범선 찰스 W.모건이 배경으로 보인다(Photograph by Carol Entin).



베랄리 어부 협동조합과 세인트빈센트 문화관광부 등의 지역 및 정부 조직들은 베랄리 포경 유산을 보존하고 문서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어부의 날 행사는 오랜 전통과 흑고래잡이 산업의 혁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 문화의 중요한 해설자이자 연주자로서 베랄리의 뱃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어부의 날 행사의 음악 공연에는 참여자들이 어업과 관련된 주제로 노래를 작곡해 연주하는 민속음악 경진대회가 포함된다. 비록 이 경진대회에 뱃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행사에서 그러한 라이브로 열리는 현지 축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베랄리 공동체가 민속음악을 수용하고 또 해양 유산의 맥락에서 새로운 음악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관광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유명해짐에 따라 베랄리는 해양 서식지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아마도 고래잡이 어부들과 그 후손들은 산티 공연을 포함한 베랄리 포경 역사가 관

광객을 위한 고래 관광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베랄리 고래잡이 프로젝트

미국인 저자 댄 래니어(Dan Lanier), 빈센트섬 주민인 빈센트 레이드(Vincent Reid)가 2001년 시작한 베랄리 고래잡이 프로젝트는 베랄리 고래잡이 유산의 중요한 특성들을 문서화하고 보존하며,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즐기도록 장려하고, 빈센트섬 주민과 관심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들의 활동을 알리려는 목표를 갖고 시작되었다. 협력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 래니어, 레이드 그리고 그 밖의 베랄리 고래잡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국에 근거를 둔 베랄리 고래잡이 프로젝트 주식회사는 비영리 조직이다. 베랄리 고래잡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웹사이트(<http://www.barnwhalers.org>)를 방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진과 짧은 녹음된 샘플, 그리고 그 외 정보를 제공한다. 

## 주석

- 1 '산티'라는 용어(빈센트인은 [shahn-tee]로 발음)는 2가지 이유에서 베랄리의 노래 전통을 가리키는 명칭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a) 아브라함이 쓴 철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라 이번 연구 내 그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b) 19세기 상선 선원들이 불렀던 전통적인 '뱃노래' (chantey)라는 철자는 더욱 일반적인 분류에 사용됨과 구분되는 하위 장르로서 특히 베랄리의 노동요를 식별하기 위해 산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잭 스타네스코(Jack Stanesco)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코네티컷 사본에 있는 민속 유산 레코드사(Folk Legacy Records)가 발매한 2장의 음반에 베랄리 산티를 몇 곡 연주했다. 이들 음반은 미국 민속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유명해지게 만들었다. 또한 스타네스코는 미국 의회도서관에 있는 민속 음악 아카이브에 베랄리 고래잡이 노래를 녹음한 음반을 기증했다.
- 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포경업의 잘 알려진 창시자 윌리엄 T(William T), 'Old Bill' 왈라스 주니어(Wallace, Jr., b1840)는 1860년대부터 1880년까지 미국 고래잡이 배에서 일했다. 1875년 올드 빌은 세인트빈센트 옆, 자신이 태어난 베크웨이(bek-way)에 최초의 포경 주둔지를 건립했다(워드: 1995).
- 4 세인트빈센트 베랄리에 있는 에드가 몰레인(Edgar Mulrairie)과 2002년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 5 각 솔로 라인에 포함된 내부 음울은 이 산티 전반에서 발견된다.
- 6 세인트빈센트 베랄리에 있는 알프레드 메이슨(Alfred Mason)과 2001년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메이슨은 한 노르웨이 고래잡이 어부가 뱃노래를 알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 7 세인트빈센트 베랄리에 있는 고래잡이 어부 베런 해리(Veron Harry)와 조지 프레데릭(George Frederick)이 2002년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 8 국제 행사에 참여했던 베랄리 고래잡이 어부로는 에드가 몰레인(현재 사망), 조지 프레데릭, 밀튼 패트릭, 베런 해리, 조지 메이슨이 있다.
- 9 이들 공연적 요소 일부는 확실히 엄격한 의미의 노동요로서의 배경을 갖기 보다는 여흥적 공연이나 재미를 위한 행사에 보다 적합하다.